

사무엘상 13.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고별설교 (삼상 12 장 1-25 절)

들어가기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추대함으로써,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국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의 직책도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작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자신의 청렴 결백한 삶을 고백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선택했을 지라도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른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 것이란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청렴 결백한 삶을 고백했습니다. (1-5 절)

1) 사무엘이 선포한 자신의 결백의 내용은?

- ① 백성의 소나 나귀를 취한 일이 없고, 백성들을 속이지 않았다!
- ② 백성들을 압제하지 않았으며,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

곧 사무엘 자신은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성실함과 공정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그런데도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지적!

2) 사무엘의 결백을 보증한 사람은?

- ① 하나님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사울 왕과 자신의 양심!
- ➔ 우리의 삶도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과 이웃의 증거와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이 되어야 할 것!

참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라!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 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디도서 1 장 5-6 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디모데전서 3 장 8-13 절

2.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6-11 절)

1) 이스라엘이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은 누구인가?

- ① 6,7 절 -> 하나님은 놀라우신 능력과 섭리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분!
- ② 8,11 절 ->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기도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의로우신 팔을 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
-> 그 예로 하나님은 여룹바알 (기도온) 과 베단(?)과 입다와 사무엘을 들어 사용하심..)

■ 주목 1.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는 이유는?

12 절, “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움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심으로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친히 싸우시며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

■ 주목 2.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는가?

- ① 9 절,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 ② 12 절,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 저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섭리를 잊어버리고,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

3.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하며 범죄하였지만, 그들이 새롭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13-15 절)

■ 주목 3. 14,15 절에서 사무엘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말?

14 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줄겠지마는

15 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곧 지금부터라도 이스라엘의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 동안 파괴되었던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4. 사무엘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표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을 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16-19 절)

1) 하나님께서 행하실 큰 일은 밀 베는 때에 우뢰와 비를 보내시겠다는 것!

참고 : 밀 베는 때

가나안의 밀 추수는 항상 5 월말 경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는 우기가 끝나고 항상 건조하고 맑은 날씨가 추수하기에 가장 적합한 때였음.. 곧 갑작스런 우리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상징으로 충분했으며,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변화를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셨다는 사실!

2) 우뢰와 비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용서를 간구하는 기도를 부탁하며,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즉시 반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일 것입니다.

5. 중보기도를 요구하는 백성들을 사무엘은 위로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쉬지않고 기도할 것이라 약속해 주었습니다. (20-25 절)

1)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위로한 사무엘..

- 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20 절)
- ② 더 이상 헛된 것을 좇지 말라 (21 절)
- ③ 하나님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22 절)
- ④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22 절)
- ⑤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라 (23 절)
- ⑥ 또한 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를 끝까지 가르칠 것이라 (24 절)

■ 주목 4.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22 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의 백성들이요 자녀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백성들임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자신감과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 생각하기 1.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